

“신궁은 나”...세계 양궁 스타들 광주서 ‘활시위’



2025 세계양궁선수권대회 개막을 하루 앞둔 4일 광주시 동구 5·18민주광장에서 관계자들이 결승전 경기장을 점검하고 있다. 광주 2025 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는 12일까지 광주국제양궁장과 5·18민주광장에 마련된 특설경기장에서 열린다. /나명주기자mjna@

‘신궁의 도시’ 광주, 서향순·장용호·기보배·안산 등 올림픽 금 6명 배출 김우진·임시현·마이크 솔로서·안드레아 베세라, 전문가 뽑은 우승 후보

활의 나라, 신궁의 도시 광주에서 또 하나의 신화를 쓴다. 2025 현대 세계양궁선수권대회가 5일 개막해 12일까지 8일간 광주국제양궁장(예·본선), 5·18민주광장(결승전)에서 진행된다. 전 세계 76개국, 731명의 궁사들은 각국의 명예와 개인 타이틀을 걸고 활시위를 당기게 된다. 1985년 서울, 2009년 운산 대회에 이어 한국에서 열리는 세 번째 세계 양궁선수권 대회에서 광주는 ‘한국 양궁의 성지’로 다시 한번 이름을 알리게 된다.

광주는 대한민국 역사상 올림픽 금메달리스트 6명을 배출한 ‘신궁의 도시’다. 서향순이 광주여고에 재학 중이던 1984 LA 올림픽 당시 대한민국 최초 올림픽 여자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광주체고 출신의 장용호와 주현정은 단체전에서 금빛 계보를 이었다. 장용호는 2000년 시드니·2004년 아테네 올림픽 남자 단체전에서 연패를 이뤘고, 주현정은 2008년 베이징 올림픽에서 여자 단체전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광주여대를 대표하는 기보배는 2012년 런던 올림픽 여자 단체·개인전 2관왕에 이어 2016년 리우 올림픽 여자 단체전 우승까지 3개의 금메달을 차지했다. 그는 세계 3대 양궁 대회인 하계 올림픽, 세계 양궁 선수권, 양궁 월드컵 파이널 개인전 금메달을 모두 가지고 있는 최최이자 유일한 여자 양궁선수이기도 하다. 전남체고를 거쳐 광주여대를 졸업한 최미선은 2016년 리우올림픽 여자 단체전에서 금메달리스트가 됐다. 광주체고·광주여대 출신의 안산은 2021년 열린 2020년 도쿄올림픽에서 혼성·단체·개인전 금메달을 모두 명증시키며 ‘한국 올림픽 최초 양궁 3관왕’ 금자탑을 세웠다.

양궁 역사가 깊은 광주에서 열리는 이번 선수권 대회에서는 각 종목별 세계 최정상급 선수들이 총출동해 금빛 경쟁에 나선다.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인 김우진(청주시청)과 임시현(한국체대)이 한국대표로 출전한다. 세계랭킹 1위 선수들도 출사표를 던졌다. 김우진의 라이벌이자 ‘세계 랭킹 1위’ 브래디 엘리스(미국·리커브 남자)와 함께 마이크 솔로서(네덜란드·컴파운드 여자), 안드레아 베세라(멕시코·컴파운드 여자) 등이 총출동해 올림픽급 빅매치를 예고한다. 리커브 여자 세계랭킹 1위는 임시현이다. 5명의 전문가들이 꼽은 우승후보는 김우진, 임시현, 마이크 솔로서, 안드레아 베세라다. 김우진은 올림픽 통산 금메달 최다 수상 기록

(5개)을 보유한 대한민국 간판 리커브 맨으로, 그간의 경험과 멘탈, 여유있는 경기 운영에서 높은 평가를 받는다. 지난 2023년 처음 태극마크를 단 임시현은 올림픽 데뷔전인 2024년 파리올림픽에서 3관왕을 차지하면서 신궁강자 수식어를 얻었다. 올림픽 디펜딩 챔피언이자 세계 랭킹 1위인 임시현은 홈에서 또 다른 우승을 노린다. 컴파운드 남자·여자 종목에서는 각각 마이크 솔로서와 안드레아 베세라가 전문가 5명 중 4명의 선택을 받은 강력한 ‘우승 후보’다. 광주에서 탄생할 세계선수권 새로운 챔피언은 6일 오전 9시 35분 시작되는 컴파운드 예선을 시작으로 가려진다. /특별취재팀=서민경 기자 minky@kwangju.co.kr

“대회 준비 완벽...세계인들 평화·인권 도시서 양궁 즐기고 갔으면”

김성은 감독 “5·18민주광장서 결승...광주 정체성 알릴 기회”

안산·기보배 등 세계적인 궁사들을 지도해온 김성은 감독(광주여대·광주은행 댄싱양궁단)이 “대회는 완벽히 준비됐다. 세계인들이 평화와 인권의 도시 광주에서 양궁을 즐기고 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 감독은 광주시양궁협회 전무이자 대한양궁협회 이사로서, 광주2025현대세계양궁선수권대회 유치와 운영준비에 수년간 힘 써왔다. 그는 “세계연맹(WA) 총회도 순조롭게 끝났고 경기장도, 시설도 모든 게 다 갖춰졌다. 특히 결승전은 역사적 의미가 깊은 5·18민주광장에서 열리는데, 무대와 좌석 설치가 90% 이상 마무리돼 리허설만 남아 있는 상태”라며 “세계연맹에서도 준비가 100% 완벽하다는 평가를 내렸다”고 전했다. 김 감독은 대회 유치 과정부터 준비까지의 과정을 돌아보며 감회를 밝혔다.

그는 “처음 유치할 때 스페인 마드리드와 경쟁했는데 우리가 승리했다. 세계연맹 총회와 세계양궁 선수권, 장애인 세계양궁선수권까지 세 개를 동시에 치르게 된 도시는 드물다”면서 “조직위와 협회가 2년 동안 준비하면서 힘든 부분도 많았지만 모든 준비가 완벽하게 돼 뿌듯하다”고 설명했다. 유니버시아드 대회를 위해 만들어졌던 광주국제 양궁장 경기장도 이번 대회를 위해 새롭게 단장했다. 김 감독은 “경기장 폭이 210m여서, 이번 세계선수권 규격에 맞추기 위해 양쪽을 10m씩 넓혀 230m로 확장했다”며 “이 과정이 쉽지 않았지만 원활한 대회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일이었다”고 말했다. 결승전 무대를 5·18 민주광장으로 정한 배경에 대해서도 그는 “광주의 상징적인 공간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후보로 국립박물관, 국립묘지, 민주광장을 제시했는데 세계연맹과 광주시가 민주광장이 최적지라는 데 의견을 모았다. 프랑스 파리에서 세계선수권 결승을 에펠탑 앞에서 치른 것처럼 광주의 얼굴을 알리고자 했다”고 말했다. 결승 티켓은 이미 전석 매진될 만큼 관심이 크다. 시민들은 5·18민주광장이 한눈에 내려다보이는 전일빌딩245 건물에서도 이번 경기를 관람할 수 있을 전망이다. 김 감독은 “좌우로 스탠드를 만들고 특수무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800여명의 관중석이 다 매진됐다고 해 놀랐다”며 “전일빌딩245 건물 8층에 가면 커피숍도 있고 문화공간으로 꾸며져있는데 경기분부가 그곳에 마련될 예정이다. 관중들도 전일빌딩을 둘러보면서 더 의미있게 이번 대회를 즐기면 좋겠다”고 밝혔다. 홍보대사로 선정된 광주 출신 간판 선수인 안산과 기보배 광주여대 교수의 활약도 이들의 스승인

김 감독에게 더욱 뜻깊다. 김 감독은 “안산 선수는 한국 여자 선수 최초로 올림픽 3관왕을 했고, 고향에서 열리는 이번 대회를 위해 욕심을 가지고 최상의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다관왕도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기대가 있다”며 “기보배 교수가 이번 대회 해설위원으로 나서는데, 광주의 양궁 전통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인물들이 함께하는 점이 매우 뿌듯하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대회를 통해 광주의 도시적 정체성을 알리는 기회로 삼겠다는 포부도 전했다. “광주는 평화와 인권의 도시다. 결승이 열리는 민주광장 자체가 그 상징”이라며 “전일빌딩, 옛 전남도청 등 역사적 공간을 세계인들에게 소개하고, 대회 현장에는 양궁 체험관과 홍보 부스를 설치해 시민과 외국인들이 함께 즐길 수 있도록 했다”고 말했다. 특히 “시상식이나 대회 곳곳에선 무등산 주상절리를 형상화한 궁사 캐릭터인 마스코트 에피도 등장할 예정이다. 광주의 상징성을 담아냈다는 점에



김성은 감독

서, 또 어린이들이 이번 대회를 더욱 즐길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했다. 또 “선수들에겐 ‘스포츠는 즐기는 사람이 좋은 결과를 얻는다’. ‘욕심을 부리기보다 현재 컨디션을 유지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이야기를 하곤 한다”며 “안산 선수에게도 현재 컨디션만 유지하면 충분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말했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그는 “선수들과 관계자 등 정말 많은 사람들이 오랜 기간 정성을 들여 준비한 대회다”며 “세계연맹, 대한양궁협회, 광주시 조직위원회가 호흡을 맞춰 성공적으로 운영되길 바란다. 부담도 크지만 준비한 만큼 좋은 결과를 보여줄 것이라 믿는다. 시민들의 많은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힘주어 말했다. /특별취재팀=김진아 기자 jinggi@kwangju.co.kr

해산 및 채권신고공고(1차)
본 회사는 2025년 8월 21일 사원총회의 결의로 해산하고 2025년 8월 22일 해산등기를 완료하였으므로 본 회사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분이나 채권이 있는 분은 이 공고 게재 다음날부터 2개월 이내에 이의 및 그 채권액을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만약 위 기간 내에 신고가 없으면 그 채권은 청산에서 제외됨을 공고합니다.
2025년 9월 5일
유한회사 실내건축인디자인
광주광역시 남구 효천2로가길 7, 504호 (인암동)
청산인 정인석

고급 전원주택 매매 (명당 위치)
전남 담양 수북 쪽재골길
대지 704py, 주택 60p
카페부속건물 20p, 태양 6킬로
최고급 독일 건축재료, 경치 최고.
금 매
매 16억 9천, 은행 11억,
인수가 5억 9천
010-3646-8700

못 받은 돈 회수
※ 1년 이상 다른 신용정보회사에 의뢰 후 못받으신 건도 가능합니다!
특수채권 담당자 전문 추심합니다.
27년 경력 국가공인 신용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선수금 출장비용 없음
(재산조사비, 법적비용은 필요에 따라 발생될 수 있음)

- 전세보증금, 경매건 및 미배당채권, 상속채권 전문 회수
- 분양대금 연체등, 채무자(신용)재산조사만 의뢰 가능
- 법인공사대금, 각종 외상 미수금 회수 전문

전문추심인 직접관리

판결문, 공증·공사대금·각사·운송료·차용증
거래장부·계약서·입금 내역·녹취 등 각종채권상당

중앙신용정보
010-2785-0073
직통전화 062)521-4109

신협이 활짝 피었습니다

든든한 금융의 힘으로
따뜻한 협동의 힘으로
당신을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평생 어부바
신협